

구역 속회 셀 목장 대표 기도문

구역 속회 셀 목장 대표 기도문

구역 속회 셀 목장 대표 기도문으로 은혜로운 모임을 시작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소그룹 모임에서 대표기도를 맡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기도문 예시를 통해 은혜로운 모임을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 속회 셀 목장 대표 기도문 1 - 모임 시작 기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시편 23:1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 이 시간, 먼저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 김집사님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박권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와 기도, 그리고 말씀 나눔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작은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속회 셀 목장 대표 기도문 2 - 말씀 나눔 전 기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105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준비해온 말씀과 나눔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씀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의 간증과 은혜의 체험을 나눌 때,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격려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속회 셀 목장 대표 기도문 3 - 중보기도 시간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 마태복음 18:18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구역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정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증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드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속회 셀 목장 대표 기도문 4 - 모임 마무리 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빌립보서 4: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돌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모임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문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구역
속회 셀 목장 모임을 더욱 은혜롭게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설교와 말씀 자료는
[사랑의교회] (<https://www.sarang.org/tv/sermon.asp?sflag=sunposi>)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